

<성경칼럼 요한복음 열한번째 : 그 일 만큼은 믿어라!>

요한복음 10장에는 어떤 심오한 말씀이 담겨있을까?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기적들을 소개하면서 그 기적들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 하다는 것이고 또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면 어찌 그런 일들을 행 할수 있을까? 라는 사람들의 반응에 확신을 주고 있다. (3:2,31,32; 4:25,29; 6:69; 7:31; 9:33) 그리고는 얼마에 한번씩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은 것들을 변증적으로 잘 표현하는 독특성을 가진다. (요한 3,7,10장)

요한복음 10장에 여러 핵심적 주제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말씀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10:37-38)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비록 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일들만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 라는 호소의 말씀으로 들린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은 하늘과 땅을 뒤엎는 일일해도 갈릴리 출신이라 안된다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유대인들 뿐이겠는가? 유대인들이 규정해 놓은 ‘하나님’ 은 반드시 자신들의 규정에의한 분이셔야만 한다. 그들의 정해진 신앙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 할수 가 없다. 이런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한 신앙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보지 못하는 경우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관점이 오늘날에도 버젓이 존재한다.

요한은 미래를 보았을까? (계시록을 썼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날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과 정통주의가 가질 문제를 고스란히 지적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 (성육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고난과 부활등) 이런 모든 것들은 이성으로 이해와 확인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한다.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은 철학자 '헤겔' 이 주장한 '이성' 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추론하는데서 시작했고 도덕을 기독교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 놓은 '칸트' 의 영향에서 출발했다. 당시에 만연한 이 두가지 이성 중심과 도덕 중심의 사상을 모두 반대한 '술라이어 마하' 는 신앙의 감각론과 감성론을 주장하면서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에 꽃을 피웠다.

기본적으로 모든 철학과 종교의 배경에는 피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 인간안에는 하나님에대해서 선천적으로 (종종 선형적 이라고도 표현한다) 내재하고 있는 종교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 안에 내재한 종교성의 소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얼마나 그럴듯한가? 그러나 정말 그럴까?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 밖에서 오는 객관적 권위인 '계시' 를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정통적 견해이다. 요한은 지금 37과 38 절에서 이런 것을 말하려는 것 같다. (물론 내 견해이지만)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칼 한 것은 오늘날 '성경의 계시' 를 중요시하는 정통주의 신앙에서도 '자유주의' 가 말하고 있는 똑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정통이 이성과 도덕이 중심이 된 자유주의를 받아 들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성과 도덕이 배제된 기독교는 과연 받아 들일 수가 있는 것일까? 이것도 불가능 할거다.

나는 지난 30년의 목회를 돌아 보면서 나 자신도 이런 문제의 틈바구니에서 혼란스러웠던 것을 인정한다. 나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슨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 할 수 있었을

까? 때로는 이성에 치중해서 때로는 감성과 감각에 치중했던 내 안의 모습이 ‘확신과 균형 잃은 진리’ 를 믿고 선포했다면 하나님 앞에선 난 어떻게 될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자유주의에대한 강박관념에 빠져 지나치게 ‘주관주의적 신앙’ 이 되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인정할까? 여기서 '주관주의적 신앙' 이란 자신이 느낀대로 자신의 주관적인 이성과 감성에따라 진리를 결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다. 이 결과에 의해서 결국 ‘이성과 도덕’ 이 신앙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되 버렸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도덕을 무시하는지 아는가?)

오늘날 기독교가 자유주의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바람에 생겨 버린 이상 현상인 ‘이성과 도덕윤리’ 에서의 탈피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신이 보고 읽고 느낀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주관주의적 신앙’ 의 자세로 바뀌어 버린 현실이 '정통신학' 과 ‘자유주의 신학’ 과의 차이에서 다를 것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주관주의적 신앙’ 이 오늘날 교회안에서 ‘깊이 있는 신앙’, 혹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신앙’ 으로 인정되어 물이 흐르지 않는 또 하나의 메마른 물줄기를 형성 하고 있다. 결국 지나치게 한 쪽으로 몰리면 다른 쪽과 결국 같아 진다는 뜻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특별히 기적분야) 100% 다 믿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또한 정통주의 신학이 지나치게 편향적 신앙에 빠져 기가막힐 정도로 자신의 주관대로 성경계시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100%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 왜냐하면 정통은 지금 100% 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 벗어난 200% 의 신앙까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일들의 100% 이하 혹은 100% 이상의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00% 의 신앙만을 원하신다. 당신의 신앙의 퍼센트는 어느쪽에 얼마인가? 100%에 못미치는가? 아니면 100% 를 이미 넘었는가?

기독교 신앙은 '헤겔'의 주장대로 이성으로 추론해서 알수 없다. 신앙은 '칸트'의 주장대로 도덕으로 완성 되지 않는다 (종종 도덕을 기준 삼으려는 유혹에 빠지지만), 신앙은 '라이프니치'의 주장대로 관계도 될수 없다 (종종 '단자론'에 빠져 믿음의 기초를 모든 관계에서 설명하려는 즉 서로가 받아 주지 못하면 신앙이 유지 될수 없다는 관계 중심주의), 또한 신앙은 '술라이어 마허'처럼 감각이나 감성이 중심이 될수 없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기초로 하는가? 요한의 주장은 '성령의 활동'이다. 성령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이 땅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 계속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의 이성과 도덕의 완성과 감성의 관계를 넘어 내 안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게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재적 능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100%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100% 이상을 믿으려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균형 잃은 무지와 교만일 뿐이다.

요한사도가 다른 복음서에선 기록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일은 믿으라'하신 말씀은 이 시대에 잘못된 신앙에 경종을 울리는 귀한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그 일만 믿어도 되는데 왜 안되는 것일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기록하지 않던 요한이 10장에서 처음으로 양의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100%에 못 미치는 것도 혹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라서 100%를 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나친 신앙의 자유와 지나친 신앙의 주관은 모두 성령이 배제된 인간 중심의 욕심에서 발생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적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좋다. God is good! 아멘!

